

2023년 10월 18일

디스플레이 / 가전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q.com
 연구원 박주영
 02-6114-2920 juyoung.park@kbfq.com
 연구원 유우형
 02-6114-2940 Woohyung.yoo@kbfq.com
 연구원 이경아
 02-6114-2111 kyunga.lee@kbfq.com

디스플레이

OLED TV 출하량 바닥 확인

8월 LGD OLED TV 패널 출하량, 전월대비 +109% 증가

— 10월 17일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 (Omdia)에 따르면 8월 OLED TV 패널 출하량 (전월대비 기준)은 LG디스플레이 +109%, 삼성디스플레이 +8% 증가세를 기록했고, 모니터 OLED 패널 출하량도 LG디스플레이 +25%, 삼성디스플레이 +78% 증가세를 나타냈다. 8월 LG디스플레이 OLED TV 출하량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신규 고객인 삼성전자로의 공급 물량 증가 효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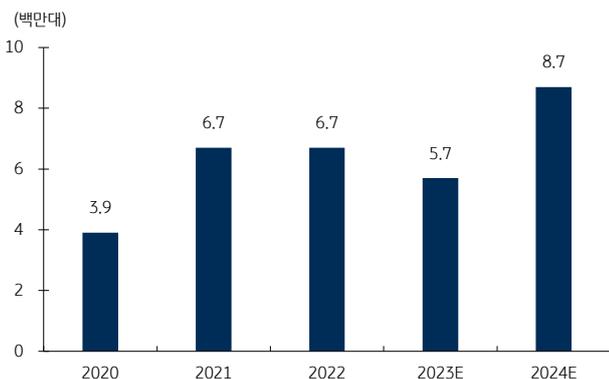
2024E 글로벌 OLED TV 출하량, 전년대비 +53% 증가

— 2024년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870만대로 전망된다. 내년 OLED TV 출하량이 올해 (570만대 예상) 대비 +300만대 증가 이유는 내년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 기타 등이 전년대비 각각 100만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① 2024년 삼성전자 OLE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② 내년 LG전자도 OLED TV 출하량이 전년대비 +5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③ OLED TV 제품 라인업이 기존 3개 (55, 65, 77인치)에서 7개 (42, 48, 55, 65, 77, 83, 97인치)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OLED TV 출하량 바닥, 삼성 OLED TV 마케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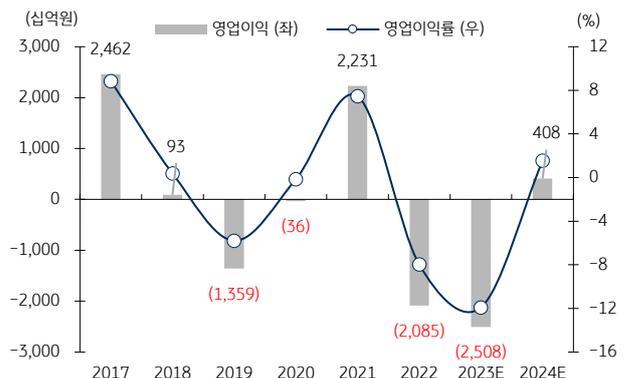
— 올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는 OLED TV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위 (18.3%)를 기록해 소니 (SONY)와의 격차를 1%p로 축소하며 약진했다. 특히 내년부터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로 OLED TV 패널 공급 본격화 (초대형 패널 120만대, 일반 패널 기준 250만대)가 전망되어 내년부터 삼성전자는 충분한 OLED TV 패널 물량 확보로 마케팅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조 단위 적자를 기록 중인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사업은 내년부터 삼성전자로의 공급 확대로 이익 창출이 가능한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24E 글로벌 OLED TV 출하 +53% YoY



자료: TrendForce, KB증권 추정

그림 2. LGD 2024E 영업이익 4,080억원



자료: LG디스플레이, KB증권 추정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디스플레이]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